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의 분석을 통한 개화기 초등교육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 : 1895-1905를 중심으로¹⁾

김정호(이화여자대학교)
이해지(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요약 》

본 연구는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초등교육 발아기의 성격을 탐구함으로써, 현대 초등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얻는데 그 연구목적에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개화기의 법령, 개화기에 편찬된 주요 교과서 및 당시의 신문 등과 같은 1, 2차 자료분석에 의한 문헌연구가 주가 되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초등교육 발아기에 이루어진 소학교령기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내용은 민족의식과 개방적 세계관 고양, 실용교육을 통한 국민생활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습자를 고려하는 인식이 발아하는 특징을 보인다. 둘째, 소학교령기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방법은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는 교육내용의 체계 확립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교수전략 및 교수자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주제어 : 한국초등교육사, 한국개화기의 초등교육, 초등교육과정,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 한국개화기의 교과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세계교육사적으로 볼 때, 초등교육은 근대국가의 성립에 따른 국민교육의 필요성과 아동

1)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KRF-2002-074-BS1045)중 일부에 해당함.

존중사상의 확산에 따른 아동교육의 필요성에서 시작되어 19세기말을 기점으로 보편화되었고, 그 후 중등교육이나 학령전교육 등과 같은 다른 학교급별 교육과 구별되면서 정련화 되어왔다. 우리의 경우에는 구한말의 개화사상과 외세의 압력이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대한제국이라는 근대국가가 건국되면서 소학교령의 공포와 더불어 근대식 초등공교육이 시작되어, 그 후 보통학교령 시기를 거치면서 다른 학교급별 교육과 구분되어 분화, 발전해 왔다. 따라서, 갑오경장 이후 소학교령이 공포된 1895년부터 시작된 우리의 근대식 초등공교육의 성격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구한말의 개화사상과 외세의 압력에 대한 민족자강의 의지에서 영향을 받아 근대시민으로서의 생활교육과 근대국가에 필요한 국민의식교육을 위한 특징을 가진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화기의 교육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근대’라는 의미에서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소학교교육 현상을 의미지우려 하는 교육사·교육사회학적인 접근의 연구들(김경미, 1999; 김영우, 1999; 손인수, 1998; 심성보(역), 1987; 오천석, 1975; 유방란, 1995; 이만규, 1988)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화기 교육에 대한 대개의 연구에서는 결과론적 해석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실패를 상정함으로써, 당시에 이루어진 교육을 통한 민족 자강의 노력에 의한 근대식 공교육으로서 한국 초등학교교육의 기원이 되는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에 대한 의미부여와 균형있는 평가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학교령기²⁾ 초등공교육의 성격을 함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관·공립 소학교의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해 고찰해봄으로써 우리의 근대식 초등학교교육의 기원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식 초등학교교육의 발아기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하여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을 분석한다. 이 시기는 내발적 노력에 의한 전통교육에 대한 반성과 외세의 영향에 의한 근대교육의 수용 의지가 1895년 소학교령을 계기로 가시화되는 시기다. 또한, 이 후의 시기는 보통학교령기로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 직접적으로 교육이 제편되기 시작하면서, 관·공립학교의 성격이 왜곡되고, 사립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어 민족자강의 애국계몽운동이 사립학교를 중심

2) 본 연구에서 ‘소학교령기’라고 칭한 시기는 갑오경장이후 소학교령이 공포된 때부터 통감부의 설치와 보통학교령의 공포 후 일본이 실제적인 교육행정을 장악하고 민간주도의 사립소학교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던 시기 직전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 민족의 개화기 중에서도 특히 1895년부터 1905년까지의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초등교육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소학교령이라고 하는 법령에 의해 국가 주도의 초등교육이 실시된 시기를 말한다.

으로 일어나게 된다(조연순 외, 2003). 따라서, 소학교령기의 개혁적인 노력은 교육을 조정하고 이용하려는 외세에 대한 국가적 대처능력의 한계와 재정적 고갈로 인한 실효적 측면의 성과는 비록 제한적이었으나, 국가가 초등교육을 통해 근대화와 국민의식계몽과 같은 노력을 하려고 했었다는 의도에 대한 의미부여와 균형있는 재평가는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과정과 당시 발간된 교과서 내용의 성격은 어떠한가?

둘째,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이루어진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과 실재는 어떠한가?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의 고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1, 2차 자료의 분석에 의한 문헌연구가 주되었다. 첫째, 소학교의 교육과정 편제와 교과목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895년 7월 22일자 관보 119호에 발표된 소학교령(칙령 제145호)과 1895년 8월 15일자 관보 138호에 발표된 소학교교칙대강(학부령 제3호)에 나타난 소학교 교과목의 교수요지와 전체적인 교수 지침이 검토되었고, 그 외에 각종 신문, 그리고 존립하는 학교의 100년사가 참조되었다.

둘째, 교과서의 내용 분석을 위해서는 18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학부에서 편찬한 교과서들 중 소학교 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추출하여 주요 과목을 중심으로 수집 가능한 것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즉, 개화기교과서에 대한 연구들(장윤희, 1973; 우용제 외, 1998; 이종국, 2002; 이해명, 1999; 정재길, 1994)을 참고로, 한국학문헌연구소에서 발간한 개화기 교과서 영인본과 이화여자대학교, 국회도서관, 한국교육개발원내 교과서박물관 등에서 구할 수 있었던 8권의 교과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 교과서들은 아래 <표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수신과 1권, 독서과 2권, 산술과 1권, 지리과 2권, 역사과 2권이다.

셋째, 소학교령기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소학교령기의 주요 개혁가의 저서 및 각종 신문의 논설과 소학교령의 교수 요지 중심으로 분석되었고, 소학교에서 이루어진 교육방법의 실제적인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당시 신문에 게재된 기사와 2차 자료로서 소학교령기 교육방법의 실제에 대한 연구물이 분석되었다.

〈표 1〉 분석 교과서 목록

교과목	분석 교과서 목록
수신	小學讀本(학부. 1895)
독서	國民小學讀本(학부. 1895), 新訂尋常小學(학부. 1896)
산술	新訂算術上(학부편집국. 1896)
지리	萬國地誌(失津呂永. 1896), 大韓地誌(학부. 1899),
역사	朝鮮歷史3책(학부. 1895), 普通教科東國歷史(현채. 1899)

여기서 미리 밝혀둘 것은 본 연구가 역사적 맥락에서의 고찰을 전제로 하지만 어떤 일정한 하나의 사관에 비추어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기보다는 수집된 사실에서 보여지는 당시의 초등교육 성격을 있는 그대로 살피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생존자를 찾을 수 없어 실제로 수행된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외현적이고 문서적 탐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3. 선행연구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 첫째는 교육사·교육사회학적인 접근의 연구(김경미, 1999; 김영우, 1999; 손인수, 1998; 심성보(역), 1987; 오천석, 1975; 유방란, 1995; 이만규, 1988)이고, 둘째는 특정 교과에 대한 교과교육학적인 고찰(강철민, 1990; 김문섭과 원충희, 1996; 조문제, 1984)이며, 세 번째로는 개화기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강운호, 1973; 이종국, 2002; 이해명, 1988; 허형, 1993)이다. 먼저, 교육사·교육사회학적인 접근의 연구들은 개화기의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배경이나 그 맥락 등의 거시적인 안목을 제공하는 반면, 개화기 교육내용 및 방법 자체가 갖고 있는 교육적 함의를 논의하는 데는 제한적으로 보여지며, 두 번째 접근으로서, 특정 교과에 대한 교과교육학적인 고찰은 개화기에 이루어진 국어와 체육 및 국사교육에 대한 각각의 학문적 특성은 다루고 있으나, 시대 전반적인 초등교육의 함의를 논의하는데는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세 번째 접근은 본 연구에 직접적인 시사를 줄 수 있는 교과서의 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세 번째 접근으로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강운호(1973)의 연구는 학부와 각급 학교 관계법 및 보통학교령에 나타난 교수요목을 고찰함으로써 개화기의 교육실태를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교과용 도서의 검정과 학회 교육회 회원들 중심의 교과용 도서 편찬 및 신간 광고를 통하여 개화기의 학회 및 교육회 설립과 교과용 도서 편찬의 경위를 정리하고 있다. 그는 무려 128권에 달하는 방대한 개화기 교과용 도서를 국어과, 한문과, 수신과, 산술과, 지리과, 역사과, 이과, 가정과, 교육심리학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교과서의 목차와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다루어진 대부분의 교과서는 보통학교령 이후에 편찬된 교과용 도서로서, 그 이전 소학교령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 중에서는 『신정심상소학』(1896), 『신정산술』(1901), 『보통교과동국역사』(1899), 『대한지지』(1899)만을 다루고 있으며, 분석 역시 목차와 서술방식에 그치고 있다.

한편, 이해명(1988)은 교육개혁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을 교육개혁이 이념이나 제도개편으로 그치는 것과 교육과정의 미흡한 개발에서 찾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 개발이 목표 선정에만 집착하고 교육내용이나 교육과정 구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 교육과정 개발에서 사회적인 요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육현장의 교사나 학생의 요구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셋째, 교육과정의 개발은 그 나라의 문화발달 수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개화기의 교육개혁은 서양의 문화를 직수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육의 실패를 교육 내적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이러한 제한적인 견해와는 다르게, 허형(1993)은 소학교령기에 소학교 학생을 위해 발간된 『국민소학독본』(1895)에 나타난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당시의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적 함의를 찾고자 했다. 그 결과 『국민소학독본』은 외국의 문물·도시·인물, 자연현상, 근대적 인간성, 우리나라의 주체성 찬미의 순으로 각각의 주제가 다루어져 있어서 민족의 주권수호와 개화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봉건적 질서와 유교적 교육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이종국(2002)은 개화기의 교과서를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로 나누어 정리하면서도 개화기에 있어 소학교령 시기와 보통학교령 시기를 구분하여, 각 교과서 출판형식이나 서술에 있어서 국문의 사용이 가지는 의미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소학교령 시기에 편찬된 교과서 중에 『국민소학독본』(1895)과 『신정심상소학』(1896)을 분석하는데 있어 목차 등과 같은 외형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교과서에 실린 내용 자체를 분석하여 이에서 드러나는 당시의 교육개혁에서 의도한 ‘바람직한 학도상’이나 ‘국민’ 등의 의미하는 바를 해석하고 있다.

이외에 교육사·교육사회학적인 접근에서도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김영우(1999)와 김경미(1999)는 갑오개혁에 따라 이루어진 학부령의 소학교교칙대강에 규정되어 있는 교수지침과 교과목 요지를 정리하고 있고, 특히 후자의 경우는 일본의 압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유방란(1995)은 한국 근대교육의 등장 과정을 우리 민족의 자강과 외교의 교섭 측면에서 조명하면서, 교육내용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과를 존중하면서도 국문, 역사, 지리, 체조 등과 같이 새로운 교과를 도입함으로써, 개화기의 교육개혁이 시대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우리 민족의 내재적 발전에 의한 것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개화기에 세워진 많은 기독교계 초등학교가 조선인에 의해 세워지고, 조선인에 의해 가르쳐진 것이라고 지적할 뿐 아니라, 근대식 교육의 박차를 가한 원인으로 개신교 선교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기독교 초등교육사는 선교사의 일부라기보다 한국교육사의 일부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개화기의 교육내용 및 방법 관련 연구는 방법보다는 교육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초기의 것들은 교과서의 목차나 서술방식 등과 같은 서지학, 출판학적인 수준의 것일 뿐 아니라, 학교급에 대한 의식이 없이 ‘근대’라는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우리의 초등교육 발아기라는 측면에서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분석이 새롭게 이루어짐으로써 초등교육적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또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근대식 초등교육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소학교령기의 관·공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근대식 초등교육의 기원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탐구하고자 한다.

II. 소학교령기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내용

1. 소학교령기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과정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근대식 공교육이 발아되는 시기로서 교육관계법령을 새롭게 제정하여 우리 초등교육의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소학교령과 소학교교칙대강에는 현대와 같은 교육과정의 총괄적인 규정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지만 소학교의 교과목 요지와 더불어 각 교과에서 다루어지는 범위와 정도가 제시되었다. 이에 의하면 소학교는 편제상 3년제의 심상과와 2-3년 과정의 고등과를 두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과정에서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를 두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심상과의 경우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로 하되, 시의에 따라 학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체조를 제하고 본국지리, 본국역사, 도화, 외국어 1과 혹은 수과를 가할 수 있으며,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더할 수 있다.”로, 고등과의 경우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지리, 본국역사, 이과, 도화 및 체조로 하되, 여아를 위하여 재봉을 더할 수 있고, 시의에 따라 학부대신의 허가를 얻어 외국어 1과를 가하고 외국지리, 외국역사, 도화 1과 혹은 수과를 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상의 교육과정 편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소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소학교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과목을 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뿐, 이같은 교과목들을 어느 학년에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배당하여 가르칠 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각 교과목의 교수요지’를 통해 각 교과목에서 다루어져야 할 교과 내용의 범위와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여기에는 다음 절에서 교과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수신, 독서·작문, 산술, 지리, 역사 교과의 교수요지만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의 교육과정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당시 제국주의에 내치할 수 있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개방적 세계관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은 고등과의 필수과목과 심상과의 선택과목으로 편제되어 있는 본국역사와 지리, 외국역사와 지리뿐만 아니라, 수신과와 독서·작문 등의 교과 시간에 다루어야 하는 교수요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소학교 역사과의 교육내용으로 선정된 것들은 국내의 지역사회 역사부터 국가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성립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그리고 현군을 비롯해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의 언행 등 우리 민족과 외국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이후의 보통학교령시기에 편성된 교육과정편제의 내용과 대비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조연순 외(2003)에 의하면 보통학교령기에는 일제의 간섭이 노골화되면서 민족의식교육을 제한하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 예로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에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루던 수신과가 개인적 영역에 대한 교육만으로 제한되며, 독서·작문·습자가 국어로 통합되면서 축소 조정되고, 외국어로는 일어가 지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역사와 지리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국체의 대요를 알게 하여 국민된 지조를 기르는 것’에 요지를 두었던 역사과의 특징이 ‘사적 대요를 가르쳐 국민의 발달과 문화의 유래와 이웃나라의 관계 등을 알게함’과 같은 지식위주의 서술로 간략하게 언급되면서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역사교육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보통학교령 시기의 교육이 일제의 통제를 더 많이 받음으로써 일제의 식민지화 준비가 이루어져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일제의 식민지화 정책이 보다 가시화되기 전인 소학교령기에, 우리는 수신, 국어, 국사, 세계사, 지리, 체조 등의 교육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부국강병의 방법으로 교육개혁을 자주적으로 실시하고자 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로 1894년부터 학부국장을 역임했던 민족주의자 이상재 선생의 전기가 있다. 그는 이 당시 우리 교육에 대한 일본의 간섭에 항거하여 교육과정 구성과 교사임용에 있어 민족적 주체성을 강조한 일화를 갖고 있다(전택부, 1977;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추진위(역), 1985). 즉, 개화초기 소학교령기의 교육내용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특징은 수신, 국어, 지리, 역사, 체조 등의 교과를 통해 국가 정체성과 애국심을 일깨우고, 개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개방적 세계관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시 설립된 사립소학교의 교육내용에 민족의식교육과 세계관 교육에 대해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해석은 지지될 수 있다. 오천석(1975)에 의하면 배재학당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계 학교들의 초기 형태는 거의 초등교육의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한다. 즉, 학교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연령이 6-7세의 아동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으며, 그들의 학력에도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교육정도는 모두 초보

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건차(1987)도 조선에서 이루어진 기독교선교회의 교육 사업이 초등교육 중심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에 의한 공교육 추진이 부진하였던 상황에서 기독교가 세운 초등학교는 소규모라고는 하지만, 도시는 물론 전국각지의 농촌에 보급되어 있었고, 1897년에 북장로파 선교회는 연차회의에서 지방학교의 교육방침을 정하여, 선교 구역 내의 각지에 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유방란(1995)은 1890년에서 1903년까지 정신여학교의 교육이 초등수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잘 알려진 기독교계 학교로서 소학교령 이전부터 있었던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각각 ‘영어, 신술, 한글, 창가, 역사 및 습자’(이화100년사편찬위원회, 1994)와 ‘성경, 한문, 역사와 지리, 산술, 도화, 습자, 체조, 음악, 가사, 침공, 전체 고용문답’(정상윤, 1974) 등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역사교육을 중요시했다는 정신여학교에 대한 정상윤(1974)의 보고와 현지 선교목표 중 각 민족의 특수성을 감안하라는 미국 감리교 기독교선교회의 입장에 대한 유방란(1995)의 보고로 보아, 기독교계 사립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기독교의 선교를 제일 목적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국어, 지리, 역사와 같은 과목을 통한 민족의식 고취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와 유사한 예는 <표 3>과 같이 민족계 사립소학교의 교육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표 3> 개화초기 민족계 사립학교 교육내용의 예

학 교 명	교 과 목	출 처
홍분동사립소학교	한문, 국한문, 대소, 습자, 산술, 렵스, 디리, 테조	독립신문 1898년 6월 9일
대묘동사립소학교	한문,여러가지글넙기,글짓기,글조익히기, 산술,조선렵스,디지,수신헝기,테조헝기,외국말	독립신문 1897년 1월 28일

진학 목적은 ‘인재를 교육하여 나라를 돕고 백성을 인도하여 부국강병 하도록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대묘동 사립소학교나 홍분동 사립소학교의 교과목에도 어김없이 국어과 관련 교과와 역사, 지리, 수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민족의식과 개방적 세계관 고양을 의도한 교육에 대한 의지는 관·공립소학교 관련 법령이나 사립소학교 교육과정 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독립협회와 같은 개화단체가 발간한 독립신문 논설에서도 발견되는데, 한 논설(1899. 1. 22.)에서는 “사람들이 사기를 공부하는 목적은 지난 일을 알아 미래사를 예측하는 지혜를 얻고자 함이니 자기 나라 사기만을 공부하지 말고 외국사도 교육하여야 하며, 청국정세와 국제정세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학교령기의 초등교육은 이전에 동몽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서당에서 전제하고 있는 세계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당에서 다룬 교재에는 중국의 인물과 역사를 다룸으

로써 중화사상을 근간으로 하였던 것에 비해, 소학교에서는 국한문혼용을 통한 국어교육과 우리 민족의 역사, 지리와 같은 내용을 독립적으로 다룬 교과교육을 통해 민족 정체성 함양 뿐 아니라, 소학교령기에 적합한 개방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하는 변화된 모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하는 국민 생활교육적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상과와 고등과에서의 선택교과로 외국어와 재봉 등과 같은 교과를 설정함으로써 근대식 실용교육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또한 체조과에서도 병식체조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술과에서도 생활연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예로 1학년부터 도량형 화폐와 시각의 연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대적으로 그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을 주산에 대한 교육 또한 1학년부터 교육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교과내용에 대한 실용성의 강조는 서광범의 이름으로 발표된 학부 공시(학부고시 제4호, 1895. 9. 28.)에도 “교육은 개화의 본이라 애국의 심과 부강의 술이 개학문으로부터 생하나니 유국의 문영은 학교의 성쇠에 제한지라... 그 과정은 오륜행실로부터 소학과 본국역사와 지리와 국문과 산술과 기타 외국역사와 지리 등 시의에 적용한 서책을 실제 교수하여 허문을 기하고 실용을 향하여 교육을 부진케 하노니...”라고 나타나 있다.

물론 이와 같이 개화초기 소학교령 시기의 교육이 다분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지라도 그것이 보통학교령 시기와 대비해 볼 때에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의 식계몽교육의 특성을 더 크게 가진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보통학교령 시기에는 교과의 실용성이 소학교령에서보다 더욱 강조되면서 산술, 지리, 이과, 수예에서도 실용성이 강조되며, 수공·농업·상업과 같이 현실성이 강한 직업교과들이 생겼기 때문이다(조연순 외, 2003). 보통학교령 시기의 이러한 변화는 일제강점기에 진전될 세속적인 실용주의가 배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학교령기 이전에 동몽교육기관이었던 서당에서 이루어진 교육내용과 대비할 때 소학교령기의 근대초등공교육은 근대교과를 근간으로 하는 실용적 성격을 띠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내용전반에 있어, 서당에서는 천자문, 동몽선습, 유합, 격몽요결, 통감, 소학, 사서, 삼경, 사서오경, 사기, 당송문, 당률 등과 같은 교재를 통해 유교적 교양을 위한 수신과 한문강독 및 역사교육에 초점을 둔 반면, 소학교에서는 다양한 근대교과를 통해 지역체의 균형적이고 보다 실용적인 교육을 꾀하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기 때문이다.

셋째, 소학교령기에 이루어진 관·공립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에서는 학습자에 대한 고려가 짝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현대 학습심리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매우 미흡한 수준이긴 하나, 기본적으로 소학교의 교육과정을 심상과와 고등과의 2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발달특성과 학습의 연계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필수 과목은 학습의 심화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심상과와 고등과 모두에 설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인식능력으로 보아 난해할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지리와 외국역사 및 이과와 같은 교과는 고등과에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교과 교육내용조직 면에서도 나타나는데, 특히, 독서·작문 및 산술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 교과에서는 그 내용의 조직을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넓혀가면서 제시함으로써 교육내용의 종적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소학교의 교육과정이 기본편제상으로는 2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고등과는, 당시 1895년에서 1905년까지 전국에 60여 개의 관·공립소학교가 세워졌음에도(김영우, 1999) 불구하고, 서울에 한곳에, 그리고 정확히 확인되는 않은 일정 지역의 심상과의 졸업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부과되는 상급학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대개의 경우 심상소학교만을 두어 심상소학교체제인 3년 간의 교육만이 일반적으로 실시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설정하고 있는 각 교과 심상과와 고등과 교수요지의 구체적인 구분에는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신과의 경우 고등과에서는 “전항의 취지를 확하여야...”라고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어, 수신과 내용의 범위나 깊이를 더하는 교육내용의 조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시도는 보이지 않는 면이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논의에서 보여지는 소학교령기 초등교육의 성격을 민족의식과 개방적 세계관의 함양교육, 국민생활교육, 그리고, 학습자에 대한 고려를 시도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전의 서당교육이나 그 이후의 보통학교령기 초등교육기관의 교육내용과 대비될 뿐 아니라, 당시 개화세력의 주장과 사립소학교의 교육내용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교과서 내용분석

1895년 이 당시에 소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에 대해서는 학부가 직접 편찬하거나 학부대신의 감정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관보] 소학교령. 고종 32년)고 되어 있어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과서 개발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양의 실용 학문에 대한 축적이 미비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모델로 할 만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학부가 교과서 개발의 책임을 맡고 최초로 착수했던 일이 외국의 교과서를 수집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1895년 군국기무처는 외부로 하여금 외국 교과서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고, 외부는 주일 공사관을 통하여 일본 교과서를 수집하도록 하였다(이해명, 1999). 그리고, 초기에는 임시교과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군국기무처가 학부에 교과서 개발을 의뢰한지 1년 만에 소학교령기의 교과서가 개발되었다. 이러

한 교과서 편찬경위는 곧 그 결과 편찬된 소학교령기 교과서 내용의 질과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서, 실제 개발된 소학교령기 교과서의 내용이 일본 교과서의 내용과 비슷하다는 연구(김병길, 1980)도 나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짧은 시기에 편찬되어야 하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을 실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당시 초등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당시에 편찬된 교과서의 내용을 수신, 독서, 산술, 지리, 역사과로 구분하여 분석, 정리하였다.

가. 수신

초등용 수신과로 편찬된 교과서는 『숙혜기략(夙惠記略)』과 『소학독본(小學讀本)』이다. 이 중 분석의 대상이 된 『소학독본』(학부편집국, 1895)은 전체 5개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성현들의 행적과 언행이 서술되어 있고, ‘뜻을 세우기, 근면성실, 참되고 실속있음, 덕행’ 등의 덕목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소학독본』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인물들을 대거 수록함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길러 주고자 한 점이 엿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은 보통학교령기에 편찬된 수신교과서들이 체제에 순응하는 식민지 인간양성과 지극히 개인적인 수신문제만을 다루고 있다(조연순 외, 2003)는 보고와 비교할 때 더욱 잘 드러난다.

나. 독서

아직까지 ‘국어’라는 이름의 교과가 등장하지 않은 이 시기에 초등용 독서과를 위해 편찬된 교과서에는 1895년의 『국민소학독본』과 1896년의 『신정심상소학 1, 2, 3』이 있다. 이들은 독서과 중심의 교과서로서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 작문이나 습자교과서는 발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여진다. 『국민소학독본』은 갑오개혁 이후 학부에서 최초로 발간한 독서 교과서로서 국한문혼용체이고, 『신정심상소학』은 그 앞 부분에 기본자모표와 『신정심상소학 서(序)』를 첨가함으로써 『국민소학독본』보다 그 구성에 있어 보다 체계화된 독서과 교과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신정심상소학』은 『국민소학독본』에 비해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 과의 분량도 『국민소학독본』보다 더 짧은 것으로 보아 『국민소학독본』의 간행 이후, 보다 쉬운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제 교과서 내용에는 일본의 영향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각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관련 국가와 교과에 대한 분석(<표 4>, <표 5>)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의 독특한 점은 여러 외국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교과서에 실려 있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국가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국민소학독본』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등의 이야기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반면, 『신정심상소학』에서는 다른 국가들의 이야기보다 일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 독서과 교과서의 국가별 관련내용

구분	조선	중국	일본	영국	미국
국민소학독본	4건(조선, 한양, 세종대왕, 을지문덕)	2건(테무진)	0건	2건(런던)	8건(아메리카대륙, 미국의 독립, 뉴욕, 링컨)
신정심상소학 1	3건(경성, 김지하, 우리나라)	0	0	0	0
신정심상소학 2	1건(장유)	1건(사마온공)	1건(소야도풍)		
신정심상소학 3	3건(만심성절, 영조, 이시백)	0	2건(각보기일, 지도)	0	1건(워싱턴)

이렇듯 『신정심상소학』에 비해 보다 주체적으로 보이는 『국민소학독본』은 ‘미국의 독립’이라든가 국가를 수호하는 을지문덕 등과 같은 인물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 반해 『신정심상소학』은 그러한 내용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통학교령기에 편찬된 『신찬초등소학』에서는 이에 ‘독립국’과 같은 단어는 완전 삭제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조연순 외, 2003).

이와 같은 『신정심상소학』에 대한 일본의 영향은 각각의 내용이 다루고 있는 관련교과의 측면에서도 드러난다. 즉,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소학독본』의 내용은 수신, 지리, 역사, 이과와 관련한 소재를, 『신정심상소학』의 내용은 수신, 지리, 산술, 이과, 도와와 관련한 소재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신정심상소학』의 내용이 『국민소학독본』의 내용과 비교할 때 역사나 지리와 같은 소재를 전혀 다루지 않거나 극히 적은 양으로 할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일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국민소학독본』의 경우 지리, 역사와 같은 민족의식교육을 소재로 한 내용을 『신정심상소학』보다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곧이어 일제의 간섭 하에 들어가는 제한점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 당시 소학교령기의 교육개혁을 통해 민족의식교육이라는 성격의 초등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표 5〉 독서과 교과서의 관련교과별 교육내용구성

구 분	수 신	지 리	산 술	역 사	이 과	도 화
국민소학독본	15	4	0	11	11	0
신정심상소학 1권	25	2	0	0	4	0
신정심상소학 2권	18	0	2	0	12	0
신정심상소학 3권	22	2	0	0	9	1
계	80	8	2	11	36	1

* 표기된 정수는 단원 수를 의미함

하되,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에서는 이과, 국사, 역사, 지리, 산술, 도화 등 인 교과서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교육과정에서 논의하였던 국민생활교육의 성격을 가진 초등교육의 측면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위의 분석 내용을 볼 때, 『국민소학독본』과 『신정심상소학』은 ‘타교과 내용과의 관련’을 명시하고 있는 소학교령교칙대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타교과복과의 관련을 지은 것은 도구교과로서 국어교육을 다룸으로써 초등국어과교육을 통한 국민생활교육을 시도하고자 했던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독서과의 교과서에서 『신정심상소학』보다 일제의 영향을 덜 받아 편찬된 『국민소학독본』은 국어 학습적으로는 정련화되지 못하였으나, 민족의식 교육과 개방적 세계관의 성격은 더욱 확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서 교과에서의 중요한 의의는 국한문 혼용으로 문해교육이 보편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놓음으로써 국민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초등교육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점이라고 하겠다.

다. 산술

산술교과서 중 분석대상이 된 것은 1901년 출판된 『신정산술』 2권 중 1권에 해당하는 『신정산술 1』이었다. 산술교과서 1권 내용의 구성을 살펴보면, 기수법과 가감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가산은 합병의 의미로 감산은 구산과 구차의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어느 것이든 각 그 개념이 먼저 소개된 후, 예제 풀이와 연습문제의 순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부록에는 연습문제의 답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현재의 교과서 구성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은 수로 사칙연산의 원리를 먼저 익힌 후 나선형 원칙에 의해 큰 수로 확대되어지는 현재의 구성과는 다르게, 각 단원은 하나의 사칙연산의 개념을 큰 수에까지 확장하여 다른 다음 다른 개념으로 넘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덧셈은 10미만의 수에서부터 10만

자리의 3항까지의 덧셈이 모두 제시된 후, 뺄셈이 제시되고 있다. 기수법에서도 역시 아라비아숫자가 조까지 제시되고 난 뒤 한자로 나타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계산 방식은 소학교교칙대강에 제시된 것과 같은 암산이나 주산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세로셈과 가로셈이 모두 제시되어 있고, 특별히 문장제 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병졸이 24859명을 새로 뽑았는데, 영중에 총병객이 48216명이니 원래 있었던 병졸은 몇 명이 나는가?”, “아세아의 황인종이 5억 2850만인데, 구라파의 황인종보다 5억 1917만 1800인이 더 많으니 구라파의 황인종은 몇 명이 남는가?” 등의 문제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제 문제의 소재는 세계 각 국과 관련된 소재, 국가와 관련된 소재, 군사적 소재, 상업, 국가의 기간산업과 관련한 소재 등이다. 이러한 소재들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는 단서가 된다.

특히, 산술교과서는 연습문제와 답을 제공하고 있어서 워크북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교과서에는 전혀 삽화나 구체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림이나 도해가 주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문장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상황 역시 아동의 일상생활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내용 자체는 초급수준의 난이도이지만 제시된 방법이나 문장제 문제의 상황은 아동발달상의 특징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지리

초등용 지리과로 편찬된 교과서는 『대한지지』와 『만국지지』이다. 이 두 가지 초등용 지리과 교과서는 모두 학부에서 각각 1899년, 1896년에 편찬한 것이다. 먼저, 『대한지지』는 한반도 지리에 대한 지식 교육을 통해 정치와 관련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교과라는 취지의 맥락 하에 편찬된 것을 그 서문을 보면 알 수 있다.

대한지지序

땅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보다 급하다. 땅이란 것은 사람과 사물에 관계되어 도읍의 크고 작음, 인구의 많고 적음, 산물의 좋고 나쁨, 풍속의 순하고 박함 등이 모두 나라의 정치와 깊이 관계하니 이에 대해 몰라서는 안 된다. 주나라와 한나라 등 옛날 사람들도 이를 중시했는데, 후세로 오면서 점점 詞章을 중시하는 학문이 득세하여 부화한 것을 숭상하고 실질을 멀리하게 되었다.

위대한 천자께서 이러한 폐단을 한탄하여 학제를 고치고 학교에서는 아동 때부터 실질에 가까운 것을 배우게 되었다. 地理도 그 중 하나이다. 어진 임금께서 본국의 지지가 단삼하여 初學에서 쓰기 불편함을 병통으로 여겨서, 국한문을 섞어 고급의 기록을 편집하되 자세한 것을 요약하여 대의를 기록하고, 또한 새로운 뜻을 첨가하여 위로는 위치에서 아

래로는 토산물에 이르기까지 무릇 10여 문항으로 편성하였다. 본 편집국에서 발행한 萬國地誌가 있지만 본국의 지지를 따로 간행하는 이유는 비유컨대 자기 말을 버려두고 남의 말에 김을 때는 어리석은 농부가 되지 않기 위함이다.

광무3년(1899) 12월25일 편집국장 이규환이 서문을 쓰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

여기서는 한반도를 13개 도로 나누어 각 도의 위치와 경계, 지세, 언혁, 산맥, 하류, 해안, 섬, 도시, 명승지, 부군위치·옛 이름·방면·가구·결·토산물 등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들의 단순한 지형적 특징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역사와 정치체제 등도 함께 다루으로써 소학교령에서 목표했던 국가에 대한 주체성 인식과 민족의식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만국지지에 수록된 국가들

편	내 용
제 1 편 아세아주	대한제국, 중국, 일본, 러시아, 터키, 베트남, 아프카니스탄, 인도 등 16개국
제 2 편 아프리카	터키관할, 프랑스식민지, 포르투갈식민지, 영국식민지, 케르만식민지, 스페인식민지 등 8개국
제 3 편 구라파주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이탈리아, 터키, 루마니아, 게르만,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 18개국
제 4 편 북아메리카주	코스타리카, 캐나다, 북미합중국, 니카라과아 등 11개국
제 5 편 남아메리카주	콜롬비아, 브라질, 에쿠아도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페루, 칠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공화국 등 11개국
제 6 편 오세아니아주	오세아니아주, 말레이반도 등

다음으로 고등과에만 부여되었던 외국지리를 위해 편찬된 교과서가 『만국지지』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대주의 많은 국가를 고루 다루고 있다. 또한, 정치적 내용도 담고 있는데 “세계에 수많은 인민이 서로 모여서 국가를 이루어 정부를 두며 정부의 체제가 2종류가 있으니 가로되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라. 군주정체를 작게 나누어 들이 되니 전제정체와 입헌정체요, 공화정체를 작게 나누어 들이 되니 귀헌정체와 민주정체라.”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렇듯, 『만국지지』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리와 정치를 소개하고 있는데, 세계교육에 대한 이런 변화는 지리와 역사교육을 의식교육이 아닌 사실교육으로,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하려 했던 보통학교령기의 교과서내용(조연순

의, 2003)과 비교할 때 개방적 세계관을 교육하여 국민을 계몽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을 볼 수 있다.

마. 역사과

초등용 역사과를 위해 편찬된 교과서에는 국사 교과서로 학부에서 간행한 『조선역사』(1895)와 현채가 저술한 『보통교과 동국역사』(1899)가 있고, 세계사 교과서로 『중일략사』(1899)가 있다.

먼저, 『조선역사』(朝鮮歷史)는 1895년 학부에서 발간한 최초의 초등용 국사교과서로 국한문 혼용체이며, 단군조선에서 고종30년(1893)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 우선, 이 교과서는 그 구성에 있어 중국중심이 아닌 우리 민족중심의 서술의지가 엿보인다. 즉, 이 교과서는 상단의 여백에 우리나라 개국기원의 연기만을 표시하고 중국 연기나 왕조표시의 연기를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중국 중심적인 연대기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3권 3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교과서는 1권에서는 단군조선기, 기자기, 마한, 진한, 변한, 위만, 하군이부, 신라, 부고구려, 백제기를 다루고, 2권에서는 고려기를, 3권에서는 조선기를 다루므로써, 단군과 기자를 우리 역사의 정통시조로 하여 동국통감과 같은 전통사서와는 달리 단군조선의 역사를 인정하여 역사의 상한을 높이고 있다(강천민, 1990).

『보통교과동국역사』(普通教科東國歷史)는 그 서문에서 저자인 현채가 중등교재인 순환문본 『대한역대사략』(학부, 1899)을 보충하여 이를 국한문으로 역술한 소학교용 교과서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문에서는 본서의 뚜렷한 편찬목적은 나타내고 있는데, 즉, “지식을 기르고 넓은 뜻을 키워 그 재주를 다해 충신애국의 대사업을 성취시켜 만국에 그 영예를 떨치게 하라.”라고 하여 충군과 애국,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빛내는 힘을 기르는데 본서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교과서는 상당히 인기있는 책으로서 당시의 학생 및 국민들 사이에 많이 읽혀졌다고 하며, 그 후 1908년의 교과서도서검정규정에 의해 불인가된 국사교과서였다고 한다(노수자, 1969). 즉, 소학교령기의 국사교육은 국사교과서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국가의 성립과정 및 그 역사 속에 훌륭한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담음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민족적 자긍심을 길러 당시의 국제정세를 헤쳐나기에는 필요한 애국심 함양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학교교칙대강의 역사과 교수요지에 언급되어 있는 ‘외국역사의 교육’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없었는데, 세계사를 다루는 초등용 교과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단지 중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룬 『중일략사』가 한 권 있을 뿐인데, 이 교과서의 서문에 따르면, 이것은 『중일략사』와 『일본략사』를 합본한 것으로, 총 4권 중 처음 2권은 중국역사를, 나중 2권은 일본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상의 역사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소학교령기의 교육내용은 당시 제국주의의 열풍 가운

데 개화를 맞이한 우리의 시대적 상황에서 나름대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국민을 기르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당시 소학교령에 의한 관·공립소학교의 근대식 초등교육은 교육개혁의 초창기부터 전면적으로 확산되어진 것은 아니어서, 이러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실효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나 보통학교령기에는 학부에서 아예 역사교과서를 편찬하지 않으면서 민간인이 편찬하는 교과서도 그 내용에 대해 엄격히 제한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초등공교육이 시작하던 소학교령기의 역사교과서는 민족의식 고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II. 소학교령기 교육방법에 대한 인식과 실제

당시 교육개혁에 따라 근대적인 교과와 이에 따른 교과서의 편찬으로 이어진 교육내용이 본래 특징에 맞게 실행되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적절한 교육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당시 교육방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으나 소학교령기 개화지식인과 개화단체의 글, 법령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소학교령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교육방법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발달단계상의 특징에 따라 체계성과 위계성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발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학습자의 발달단계에 따른 학교 수준의 구분을 주장함으로써,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교수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즉, 그는 학습자의 수준별 지도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저학년을 위한 휴식시간의 활용”과 같은 언급은 학습자의 심리적 욕구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박은식은 『학규신론』(박은식, 1904)에서 페스탈로찌를 소개하면서 “어린이를 지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천성에 따르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소학교 교육에서 학습자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이런 인식은 몇몇 개혁가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학교교칙대강에서 독서과에 대한 3조에는 “교과목의 내용 배열 순서가 ‘근(近)에서 원(遠), ‘간(簡)에서 번(繁)으로’ 되어야한다.”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독서과의 내용 조직에 있어 난이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독서·작문과에서는 “독본의 문법은 평이케 하여 보통국문의 모범됨을 요하는 고로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하며...”, 역사과에서는 “아동으로 하여금 당시 실상황을 상상하기 쉬운 방법을 골라 인물의 언행 등에 관해서는 수신에서 가르친 격언 등에 비추어 정아시비를 분별케 할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둘째, 다양한 교수전략적 접근과 다양한 교수자료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먼저, 박은식(1904)은 “미국에서는 찰물학당(察物學堂)이란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놓고, 글을 배우기 전에 이것을 보고 배운다.”라고 언급하면서 다양한 교수자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대한매일신보(1905. 10. 5. 논설)에서는 ‘소학교의 교과책자는 모두 사물의 명칭과 그림, 글을 함하여 간편하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읽게 하라...’는 것과 ‘국한문을 함께 쓰고 그림과 글을 함하여 간편하고 알기 쉬운 책자로써 전국의 초학자에게 일치된 교과서를 재정함이 가능하다...’로 해석되는 글을 통해 소학교 학습자의 학습을 용이하게 하는 그림이나 글, 교과서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제국신문의 논설 “으히 길은은 규모”(1899. 2. 27.)에서도 학습자에게 무조건 교육내용을 제시하고 학습을 강요한다고 해서 학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자의 심리가 학습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이나 교육내용 관련 의 활동을 제공할 것과 그림조각이나 나뭇가지 등과 같은 자료를 교수자료로 이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피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소학교교칙대강 내용 중 지리과의 “지구의와 지도, 사진 등을 시하고”라든가, 이과의 “실지의 관찰을 기초로 표본, 모형, 도화 등을 보여주며” 등의 내용도 소학교 교육에 있어 교수자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발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교육개혁가와 교육 관계 법령 등을 통해 학습자를 고려한 다양한 교수전략과 교수자료의 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정작 교육현장에서 시행된 교육방법은 서당식의 교독형식이 주류를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만규(1988)는 당시의 관립소학교가 건물도 옛날 집을 이용하였으며 교재도 펴 빈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교육방법은 개화지식인들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육방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의 초기단계에 머무는 수준으로,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아직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육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교육관련자들의 인식이 전폭적으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는 효율적이고 적절한 교육방법을 시행하기 위해 소학교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부족했던 점들을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당시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에는 ‘평가’에 대한 인식과 실체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소학교교칙대강의 이과 교수요지를 보면 “간단한 시험을 통하여 명확히 이해케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이 시행된 듯하다. 왜냐하면 소학교에서 시행된 평가 관련 기사를 당시에 발간된 신문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실린 평가 관련 기사를 분석해볼 때, 평가는 크게 입학에 위한 평가와 진급 및 졸업을 위한 평가 등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심상과와 고등과의 입학시험이 있었고(제국신문. 1898.10.25. 1권 43호 광고), 진급 시에는 반드시

시 시험이 시행되었으며(제국신문. 1899.1.25. 2권 18호 잡보; 1901.1.16. 3권 10호 잡보2쪽 외), 우등생에게는 포상하였고(제국신문. 1898.2.15. 1권 86호 잡보; 1899.1.18. 2권 12호 잡보; 1901.1.24. 3권 17호 잡보 2쪽; 1903.7.26. 1167호 잡보2쪽 외) 졸업을 위한 시험이 있었으며(1904.5.21. 131호 잡보 3쪽; 1903.12.10. 1247호 잡보2쪽; 1904.7.16. 1419호 잡보2쪽 외), 그 외에도 계절별 시험이 있었다(1904.7.9. 1413호 잡보 2쪽; 1904.7.9 1413호 잡보 2쪽 외).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소학교령기의 교육개혁 중 교육방법적 측면에서는 학습자를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에 따른 교수자료 사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발아와 평가제도의 실시가 주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중에서 학습자를 고려해야 하는 것과 다양한 교수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은 당위성의 주장 수준에 머물면서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행되는데는 많은 제한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평가의 필요성은 개혁가들이나 법령에 의해 계획, 주장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이 시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평가가 근대교육이 시행되기 이전인 전통교육에서 이미 실시되어져 오던 것이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당시 소학교교육은 제국주의시대의 부국강병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적 필요가 학습자의 필요에 앞서서 고려되어짐으로써 가르쳐야 할 교육과정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이를 어떻게 학습자의 흥미와 발달상의 요구와 결부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교육방법에 대한 논의는 구래의 서당교육방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동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IV. 결 론

소학교령으로 시작된 대한제국의 관·공립 소학교는 실효와 파급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한국 최초의 근대식 초등공교육기관으로서 초등교육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895년에서 1905년 사이에 국가의 교육개혁에 따라 등장했던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의 근간이 되는 소학교령과 소학교교칙대강에 나타나는 교육과정과 그에 따라 편찬된 교과서를 분석하고, 당시에 발간된 신문과 저서 등 관련 문서를 토대로 교육내용과 방법의 성격을 탐색하여 당시의 초등교육을 재평가함으로써 초등교육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는 생존자를 찾을 수 없어 실제로 수행된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외현적이고 문서적 탐구라는 한계를 갖는다.

본문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내용 면에서 볼 때, 소학교령기 관·공립소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첫째, 당시 제국주의에 대처할 수 있는 민족의식을 고양하고 개화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개방적 세계관을 고양시키려는 의도가 두드러지고, 둘째, 실용적인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생활교육을 꾀하는 특징을 가지며, 셋째, 학습자의 발달적 특성과 학습의 연계성 고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소학교령과 소학교교칙대강 수준의 교수요지가 구체화된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수신, 독서, 역사 교과에서 뿐 아니라 지리와 산술교과에서까지 개방적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몽하고자 했던 노력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한편, 교육방법 면에서 보면, 소학교령기의 교육개혁가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미 학습자의 발달단계상의 특징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위계적인 교육내용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발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전략의 접근과 효율적인 교수자료의 사용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실제로는 다양한 ‘평가’가 시행됨으로써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보상이 교육현장에 적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검토는 소학교령에 의한 당시의 교육적 도모가 근대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정련화된 시도였는가 라는 측면과, 실제 어느 정도 교육현장으로 적용되었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지니지만, “小學校는 兒童身體의 發達함에 鑒하여 國民教育의 基礎와 基生活上 必要한 普通知識과 技能을 授함으로(소학교령 제1장 제1조)”라는 당시 초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미있는 도모였던 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소학교령기 관·공립 소학교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서 보여지는 초등교육의 성격은 초등교육에서 학습자인 아동의 필요와 요구보다는 당시의 국제적, 사회적 맥락에서 국가의 요구가 보다 비중있게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제국주의 열풍에 노출된 국민을 일깨우기 위한 민족의식 교육과 개방적 세계관교육 및 실용적 생활교육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와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국민교육의 측면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초등교육에 주는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은 국민교육의 방향성 제고와 국민교육적 성격 외에 학습자인 아동의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는 무게있는 노력의 필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첫째, 국민교육의 성격을 뚜렷하게 갖는 초등교육은 당면한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함과 동시에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회변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역으로 교육은 현실사회의 제반 여건 즉, 그 사회의 물리적 기초와 국제사회 등의 외적 조건, 그리고 국민교육수준 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초등교육은 국민교육적 성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게된다 할지라도 학습자인 아동 개인의 필요를 고려하는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교육의 발아기에서 드러나는 교육구국이라는 국민교육적 성격은 제국주의 열풍이라는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이 이유가

된 것 외에 근대식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근대국가의 성립과 연관되어지는 데에 근거한다고도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민교육에 치우치는 초등교육의 성격은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초등공교육이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향지워지고 있는 것은 것과 같은 것이다. 즉, 어느 시대이든 그 국가가 당면한 과제와 국제적 기류가 있기 마련이므로 초등교육을 국가가 관장하고 있는 한, 초등교육의 교육내용이 국민계몽교육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경향은 언제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국가가 관장하는 초등공교육이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적 가치 외에 학습자 차원에서의 요구 또한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하는 과제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 강운호(1973). 「개화기의 교과용 도서」. 서울: 교육출판사.
- 강철민(1990). 「개화기의 초등 국사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경미(1999). 「갑오개혁 전후 교육정책 전개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문섭, 원충희(1996). 우리나라 근대 학교체육에 관한 연구 : 1876년에서 1910년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스포츠 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0호. 1996. 10. 22-66.
- 김병길(1980). 「韓國近代西洋文學移入史研究」. 서울: 을유문화사.
- 김영우(1999). 「한국 초등교육사」. 서울: 교육과학사.
- 노수자(1969). 「백당 현채연구」. 이대사원 8.
- 박은식(1904). 「학규신문」. 서울: 박문사.
-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 심정보 역(1987). 尹健次 지음. 「한국근대교육의 사상과 운동」. 서울: 청사.
- 오천석(1975). 「한국신교육사」. 서울: 광명출판사.
- 우용제 외(1998). 「근대한국초등교육연구: 동몽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서울: 교육과학사.
- 월남이상재선생 동상건립추진위(1985). 「월남 이상재선생 이야기」. 서울: 로출판.
- 유방란(1995). 「한국근대교육의 등장과 발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박사학위논문.
- 이만규(1988). 「조선교육사 I & II」. 서울: 거름 신서.
- 이병진(1990). 「초등교육학개론」. 서울: 문음사.
- 이종국(2002).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서울: 일진사.
- 이해명(1988). 「개화기 교육과정 개발 단계에 대한 연구」. 교육과정연구. 제7권.
- 이해명(1999). 개화기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과정연구」 Vol. 17. No. 2. pp. 141-162.
- 이화여자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1994).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전택부(1977). 「월남 이상재」. 서울: 한국신학연구소출판부.
- 정상윤(1974). 「한국신교육백년사료」. 서울: 민주여론사.
- 정재결(1994).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1)-개화기의 학교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문제(1984). 「개화기 국어과 교육의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연순(1994). 「한국초등교육의 기원」. 서울 : 교육과학사.
- 조연순 외(2003). 개화후기(1905-1910) 초등교육의 성격. 「초등교육연구」 제16집. 2호.
- 허 형(1993). 한국개화기초교과서(국민소학독본)에 나타난 주제분석. 「교육과정연구」 12집. 112-121.<소학교령기 관보 및 신문>
- [관보119호](1895. 7. 22). 소학교령과 [관보138호](1895. 8. 15.) 소학교교칙대강.

학부고시 제4호. 1895. 9. 28.

대한매일신보. 1905년.

독립신문. 1896년-1899년.

제국신문. 1898년-1899년.

<소학교령기 교과서>

失津昌永(1890). 萬國地誌

학부편집국(1899). 大韓地誌

학부편집국(1901). 신정산술 1권.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어편. 국민소학독본(1895).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어편. 소학독본(1895).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어편. 신정심상소학 1.2.3(1896).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사편. 보통교과동국역사(1899). 서울: 아세아문화사.

한국학문헌연구소(1977). 한국개화기교과서총서:국사편. 조선역사(1895). 서울: 아세아문화사.

• 논문접수 : 2003년 10월 15일 / 수정본 접수 : 2003년 11월 22일 / 게재 승인 : 2003년 12월 4일

ABSTRACT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of Korean Public Elementary Schools between 1895 and 1905³⁾

Jung-Hyo Kim(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Hai-Ji Lee(Ph. 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reexamine the nature of elementary school education during Korea Enlightenment Age and to get some suggestions toward the modern elementary education. For that purpose, this study tried to analyze the contents and method of Korea public primary schools between 1895 and 1905. Textbooks of Korea Enlightenment Age and newspapers at that time were consider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orea public primary schools between 1895 and 1905 was focused on the need of the national consciousness, World view, and utility education. Second, the method of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 public schools at that time was taken up with the recognition of necessity of education contents organization, various teaching strategy, and appropriate evaluation for the occasion. These research results that elementary education in Korean public schools between 1895 and 1905 took the nature of enlightening the people for future rather than fundamental and common education.

Key Words : elementary education of Korea Enlightenment Age, contents and method of Korea public primary schools, textbooks of Korea Enlightenment Age

3)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Research Foundation Grant(KRF-2002-074-BS1045).